

	AC-1-62-				
	보 도 자 료				생산적 금융신뢰받는 금융
금융위원회	보도	2017.9.4.(월) 조건	<u>'</u> 배포	2017.9.1.(금)	•포용적 금융
책 임 자	주금소 국 등 기 한 기 전 경 한 법 상 위 기 전 경 한 한 자 감 원 이 기 점 장 한 차 국 한 경장 한 차 감 원 생 전 학 한 경 한 차 감 원 생 인터넷인	용위 전자금융과장 등 민(02-2100-2970) 위 FIU기획협력팀장성 은(02-2100-1730) 조실 금융정책과장 등 엽(044-200-2190) 때부 외환제도과장영 렬(044-215-4750) 재부 금융세제과장인 혁(044-215-4230) 정위 특수거래과장영 종(044-200-4430) 무부 상사법무과장성 훈(02-2110-3167) 개인정보취해조사과장치연(02-2110-1567) 현(02-2110-1567) 현(02-3150-1605)	담 당 자	김 민 하 (02-210) 이 영 민 (02-210) 김 정 훈 (044-20) 유 예 림 (044-21) 정 은 애 (044-20) 김 봉 (02-211) 황 선 철 (02-211) 김 상 준 (02-315) 김 정 등 (02-315) 김 용 區 (02-314) 윤 석 용	0-2972) 사무관 0-1722) 사무관 5-4751) 사무관 5-4232) 사무관 0-4438) 진 검사 0-3759) 사무관 0-1525) 사무관 0-1525) 사무관 0-0252) 구 팀장 0-0252) 구 팀장 0-6639) 태 팀장 5-7425) 응 팀장

제목: 기상통화 관계 만 합동 Tr」 개최 - 기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

- ◆ 오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「기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」를 개최
- ◆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실행가능한 조치 신속 추진,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규제 신설
- 〈 거래투명성 확보,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〉
- ✓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 강화,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,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자율규제 권고
- ✓ 유시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, '가상통화거래행위'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
- 〈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 〉
- ✓ 「가상통화 합동단속반」 구성 등 범죄 단속처벌 강화
- ✓ 고객정보 유출사고 조사제재,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체계 구축

1. 회의개요

□ 금일 '17.9.1.(금) 10:3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「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」회의를 개최

○ **일 시** : '17.9.1.(금) 10:30

○ 장소: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

0 참 석

- (금융위) 부위원장(주재), 금융서비스국장, FIU기획행정실장, 전금과장
- (관계기관) 국조실, 기재부, 공정위, 법무부, 방통위, 국세청, 경찰청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한국인터넷진흥원

2. 주요내용

< 추진 배경 >

- □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가상통화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거래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,
- 가상통화를 악용한 불법거래,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· 다단계 등 사기범죄 발생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을 언급
- 현 시점에서 가상통화는 화폐·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, 가상통화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금융거래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함
- 아울러, 금일 관계기관간 논의를 통해 마련된 **대응방안**이 **차질 없이 이행**될 수 있도록 **긴밀한 공조와 협력**을 당부하였음

< 주요 대응방향 >

- 거래투명성 확보,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
- □ <u>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</u>에서 <u>실행가능한 방안</u>으로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을 강화하고,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시 은행의 의심거래보고도 강화할 예정
- 아울러,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가상통화를 해외송금의 매개수단 으로 활용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, 거래투명성도 확보해나갈 계획
- 현재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해 **의심거래보고**(특정금융정보법), 실명확인(금융실명법) 규제를 적용('17.7월)하는 만큼,
- 가상통화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규제도입을 추진할 계획(특금법 개정)
-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등 소비자보호 사항을 취급업자가 마련할 자율규제안에 반영토록 권고 추진
- □ 나아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<u>법·제도도 정비</u>해나갈 계획
-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상 근거를 명확화하고,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
- 한편, 가상통화의 가치를 정부·금융기관이 보장해 줄 수 없으므로 가상통화거래를 금융업으로 포섭하여 공신력을 부여하기는 어려우나,
-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, 기존 유사수신행위 외 '가상통화거래행위'에 대해서도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 (가칭 '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')
- 또한, 지분증권·채무증권 등 **증권발행 형식**으로 **가상통화를 이용** 하여 **자금조달**(ICO)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**자본시장법 위반**으로 처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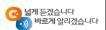
- 2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
- □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<u>범죄·불법행위</u>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호히 대응
- 유사수신·다단계 등 사기범죄는「합동단속반」을 구성하여 집중단속기간 동안(~'17년말) 단속을 실시하는 등 범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예정
- 해킹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,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
- 아울러, **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**을 조사하고, **공정위·검찰·경찰·** 국세청 등과 상시 공유하는 등 **공동점검체계**도 구축할 예정
- ❸ 규제·감독 문제 검토
- □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성격이나 인가 문제, 과세 문제 등 국제 적인 공감대가 확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
- 각국 정부, 국제기구 등의 논의·규제 동향을 보면서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

3. 향후일정

- □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TF를 **분기별로 개최**('17.9월, '17.12월)하고,
- 관계기관 실⊠점검⊠의(☒端 ☒☒위 ☒☒☒☒☒☒☒)를 ☒☒ ☒☒하여
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별첨2 가상통화 거래 유의사항

□ 매우 큰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

- 가상통화는 그 가치가 수요·공급에 따라 변동하며, 정부·금융 기관 등이 가치를 보장하지 않음
- 또한, 불확실한 가치 등으로 가격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
- 가격 급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이 △우 커 본인의 책임
 하에 거래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

② 유사수신·다단계 등 사기범죄에 주의

- ☑근 유사코인 투자시 고수익 제공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 하여 유사수신·다단계 등 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다수 발생
- 비트코인 등 거래에 널리 이용되는 **블록체인 기술**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 원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반면,
- **다단계 유사코인**의 경우 소스코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
- 고수익을 약속하며 시중에서 **사용이 불가능한 가상통화**를 판⊠ 하는 업체는 사기업체이며, **후원수당을 지급하며 다단계 조직을** 이용하여 **가상통화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**이므로 주의가 요망됨
 - * 수원지방검찰청 배포 보도자료 참조('16.6.20일, '16.7.27일, '17.6.22일)

③ 해킹 및 암호키(Private Key) 유실 위험에 노출

- 이용자가 가상통화를 직접 보관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하는 경우에도 가상통화 보관지갑 해킹으로 이용자 자산이 탈취될 위험이 존재함
- 또한, 가상통화 거래시 필요한 **암호키(Private Key)가 유실**되는 경우 해킹 없이도 **이용자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음**